



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촉진하고 산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산림 전문 정부간 국제기구입니다.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아시아의 산림 면적을 확대하고 파리협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전 지구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. AFoCO는 유엔 총회의 상임 옵서버이며 OECD-DAC가 인증한 ODA 이행 적격 국제기구입니다.



비전 · 미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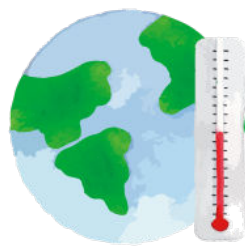
AFoCO는 회복력 있는 숲과 경관 및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보다 친환경적인 아시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.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,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, 지역주민 생계개선 등 중점 분야를 전략적으로 설정하여 내실있는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행동 지향적인 협력 사업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. 산림 분야의 유일한 정부간 기구로서 황폐지 복구와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등 특화된 활동을 범부문적으로 이행하고 회원국의 산림 현안 규명 및 대응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



중점 협력분야



맞춤형 산림복원
복구 모델 개발



기후변화 적응
연구개발 지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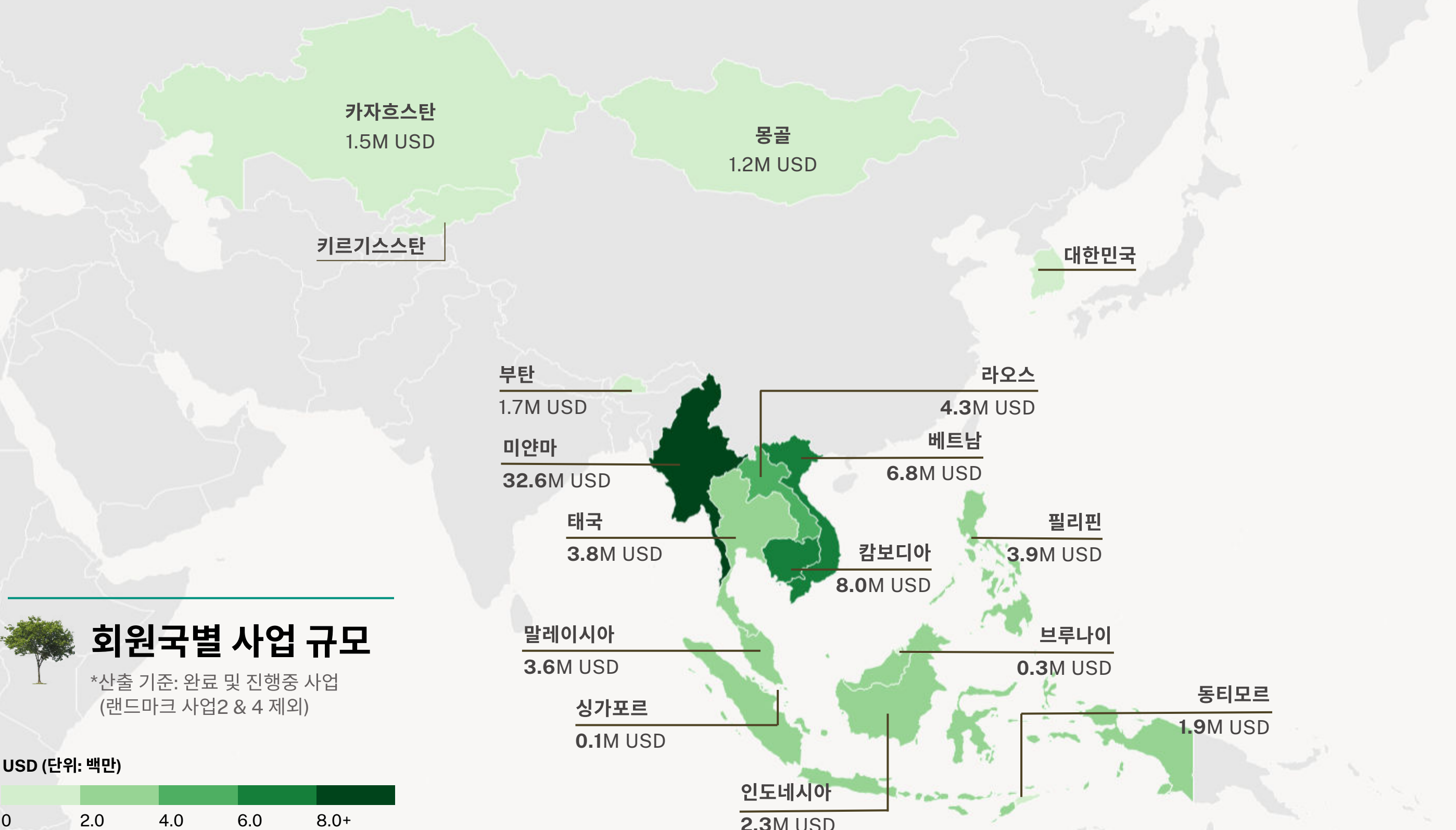
체계적 산림재해
관리방안 도입



지역주민 생계개선
및 마을기업 육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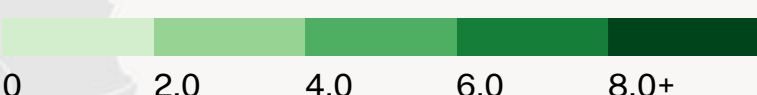
조직역량 강화, 자원
다양화 및 지역활동 증진



회원국별 사업 규모

*산출 기준: 완료 및 진행중 사업
(랜드마크 사업 2 & 4 제외)

USD (단위: 백만)



사업 규모

총 사업비

83.6 M

자발적 기여금

54.3 M

산림청

46.0 M

기타 자원

8.3 M

사업이행국 기여금

29.3 M

*현물기여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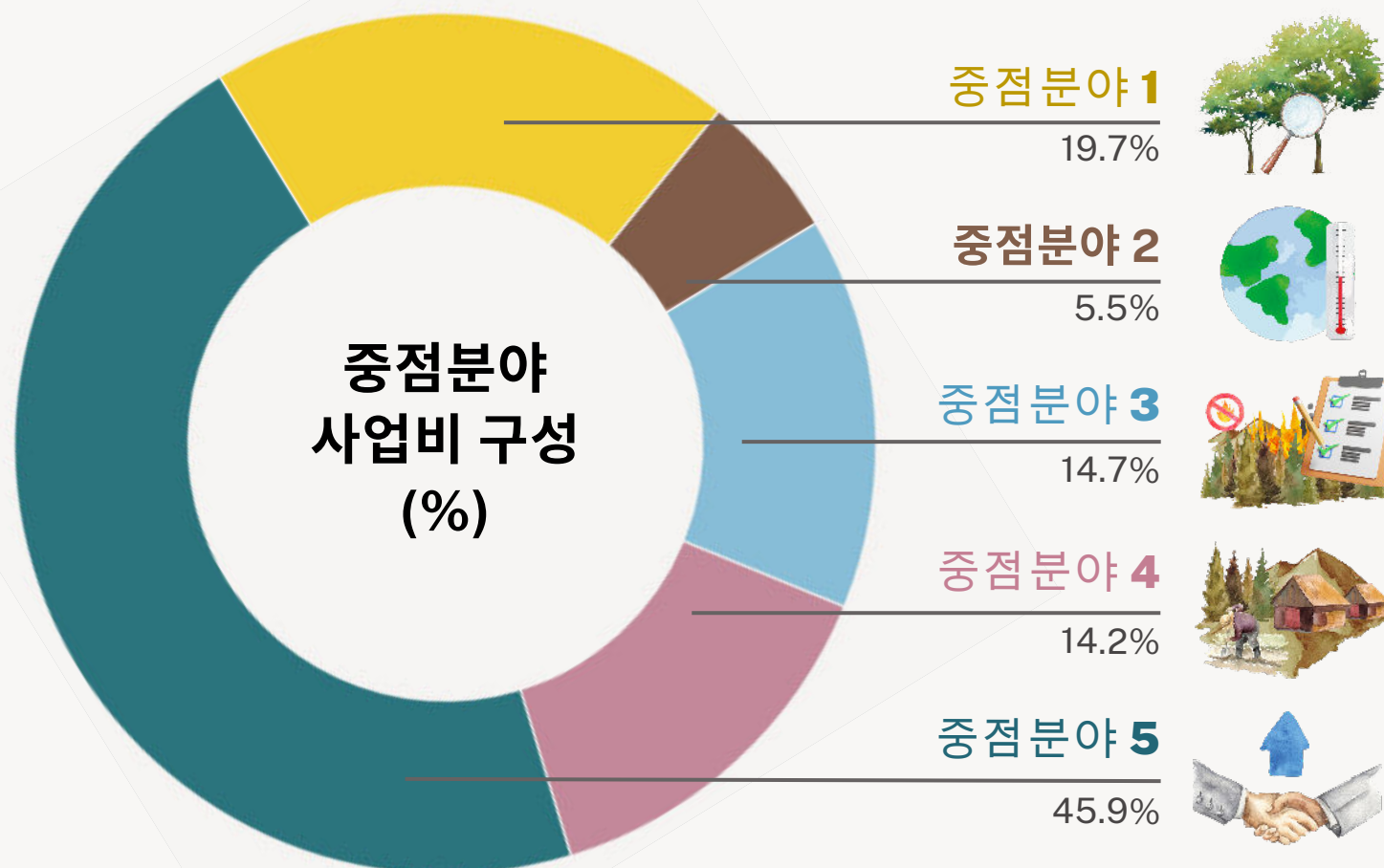
자발적 기여금

64%

사업이행국 기여금

36%

사업비
구성



맞춤형 산림복원·복구 모델 개발

기후변화 적응 연구개발 지원

체계적 산림재해 관리방안 도입

지역주민 생계개선 및 마을기업 육성

조직역량강화, 자원 다양화 및 지역활동 증진
*교육훈련센터(RETC) 설립 및 운영 포함

산림분야 역량 강화

AFoCO는 아시아 지역 내 산림 및 임업분야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, 과학기술 교류 (STEP) 프로그램, 장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31
공무원
(2015-2023)

27
장학생
박사 10, 석사 17
(2015-2023)

12
연구원
(2019-2022)

교육 프로그램 운영 (2014-2022)

46
장·단기
연수 과정

52
지역사회
개발 과정

11
맞춤식
연수 과정

공무원
5,083
(47.3%)

지역주민
4,641
(43.2%)

연구원 및 대학원생
1,024
(9.5%)

109 회

10,748 명 배출

여성 42.6%
남성 57.4%

AFoCO는 아시아 지역의 역량강화, 지식 및 정보 교류 등을 위해 산림분야 전문 교육훈련센터(RETC)를 2018년 미얀마 양곤에 설립하여 회원국의 산림 분야 역량 강화 니즈에 따라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2015

-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 및 발효 준비

2020

- 유엔 총회 옵서버 지위 획득
- 유엔 사막화방지협약(UNCCD)의 협력 기구로 인증

2022

- 유엔 기후변화협약(UNFCCC)의 옵서버 기구로 인증

2018

-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
- 교육훈련센터(AFoCO RETC) 개소

2021

-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 협정 발효
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개발원조위원회(DAC)의 공적개발 원조(ODA) 적격기구로 승인
- 유엔 생물다양성협약(CBD)의 협력 기구로 인증